

‘담배’에 관해서...

담배에 관한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나는 담배는 가능하면 피우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담배는 그것을 피우는 사람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가 날 때나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때에 담배를 피우면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나 식당, 버스 등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괴롭다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규칙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와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때인 만큼, 너무 미화시킨 담배광고는 방송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광고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을 위해서도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한 몸으로 오래살고 싶은 사람들은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지요...